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세기 2장 15절) “신부님, 내년에는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매실 출하 전 본부에서 산지 점검을 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매실 10개 중 8개는 씨살이 애벌레가 알을 씨방에 놓아 흉작입니다. 답답한 맘에 이놈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제를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 즉시 농민은 “신부님, 내년에는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내년에는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에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의 원리를 멀리하고, 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톨릭 우리농운동을 하는 농민이 있기에 늘 든든하고 보람이 가득합니다. 유기농업을 하는 농촌의 가치는 도시민들에게 주말의 쉼터와 생태계 관리를 통한 공기 정화 작용을 합니다. 땅을 돌본다는 것이 바로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뜻이며, 이 일은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 회원 모두에게 농민 주일을 맞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기농산물 나눔터인 각 본당 생활공동체 활동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당 내 나눔터를 꾸준히 지켜온 우리농 나눔터는 농민들의 뜻이 실천되도록 주교회의(1994년)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주교단은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며 우리 농민과 농토 및 농업을 살리는 일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원 방안의 하나로 가톨릭 농민회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농산물 직매장 설치에 각 교구별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라는 그 뜻을 이어오고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에서 말하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일에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산교구 내 나눔터를 운영하는 본당과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지구(고성, 대진, 복신동, 태평동, 거제, 고현, 옥포) 마산지구(구암동, 산호동, 삼계, 호계, 완월동, 월남동, 월영, 진동) 진주지구(망경동, 봉곡동, 옥봉동, 가좌동, 거창, 산청) 창원지구(사파동, 명서동, 반송, 사림동, 중동, 팔용동, 여좌동, 용원, 중앙동, 장등, 진영)과 직매장(가톨릭 우리농-어반, 늘푸른-양덕)과 진해 복지관과 유치원(명서 성모유치원, 성미유치원, 진해 성심유치원, 파티마어린이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온갖 맛나고 건강한 먹거리로 가족의 건강을 돌보며 행복을 누립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라며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노동으로 일구어진 열매를 먹고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부모의 노동은 음식이 되어 자녀에게 기쁨과 부모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의 맛난 먹거리가 자손손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일구고 돌보라고 주셨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주님 주신 이 땅을 건강하게 돌보고 가꾸어 더없는 맛의 기쁨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인으로 나날을 살아갑니다. 아멘.



강형섭 미카엘 신부 | 농어촌사목 겸 가톨릭 농민회 담당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55,10-11
화 답 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제 2 독 서	로마 8,18-23
복 음	마태 13,1-23 또는 13,1-9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기후 재난 시기에 유기농을 다시 생각하여 봅시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지구촌 곳곳이 기후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땅을 가꾸고 작물을 키우는 농부들을 생각하여 봅시다. 생명을 가꾸고 길러 내어 소출을 얻는 농사는 지속 가능하여야 합니다. 곧 우리가 먹을 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땅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합성 비료와 살충제는 토양의 미생물을 죽이고 토양 구조를 파괴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토양을 황폐시킵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땅에서는 작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현대 농업은 사실상 ‘산업농’에 가깝습니다. 화학 비료와 살충제, 고엽제 등 유독 물질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농업은, 다시 말해서 생명과 돌봄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생명을 키우고 돌보는 일인데, 공산품과 같은 규격화된 농산물을 얻으려고 생명에 반대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과 파괴는 우리가 자연에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찬미받으소서』, 3~6항 참조)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폭력입니다. 산업농의 폭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물을 오염시킨다는 점입니다. 농촌에서는 지하수를 마셔 왔는데, 이제 그 지하수가 많은 제초제와 살충제 등의 유해 화학 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런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 오염된 물이 작물 재배에도 사용됨으로써, 그것을 먹는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갖가지 위험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에서는 합성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토양 미생물에서 얻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생명체는 사람들이 ‘해충’이나 ‘잡초’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산업농이 해충과 잡초를 박멸하려는 접근 방식을 가진다면, 유기농은 모든 생명체의 중요성과 상호 연결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체의 대량 학살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 농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 농업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써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닙니다.”(『찬미받으소서』, 217항)

생태 사도

우리는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하느님께 바칠 예물을 준비하며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성체성사의 거행 안에서 우리의 노동으로 마련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신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써 새로운 힘을 얻고 교회의 신원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화학 농약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땅과 그곳에서 같이 죽어 가는 생명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땅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대표적인 ‘생태 사도’입니다. 대규모 산업 농업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과, 단일한 규격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 때문에 유기 농업을 실천하는 농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땅은 애정을 주면 풍성한 결실로 보답하여 줍니다. 그러나 유기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호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가톨릭 농민 회원들은 현재의 어려움에도 ‘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생태 사도’로서 굳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이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자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곳곳이 어려움을 견디어냅니다. 또한 이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외형이나 가격을 따지지 않고 꾸준히 선택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농 생활 공동체의 식구들로, 같은 ‘생태 사도’로서 서 있습니다.

이익과 물질 만능의 세상에 살면서도 희생과 투신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생태 사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잦아진 이상 기후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당부에 따라 지금이라도 생태적인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 사도’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농민 회원들과 우리농 생활 공동체 회원들과,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질서에 따라 생명을 씨 뿌리고 가꾸며 키워 내는 모든 분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생태 위기 시대임이 일깨워지고 모든 생명에 구원의 희망이 전하여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물질 만능의 세상에 살면서도 희생과 투신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생태 사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잦아진 이상 기후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당부에 따라 지금이라도 생태적인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 사도’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농민 회원들과 우리농 생활 공동체 회원들과,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질서에 따라 생명을 씨 뿌리고 가꾸며 키워 내는 모든 분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생태 위기 시대임이 일깨워지고 모든 생명에 구원의 희망이 전하여질 것입니다.

2023년 7월 16일 제28회 농민 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헌동 아바스



제12회 교구 성경잔치 준비 및 성경특강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다



초록과 생명력이 가득한 초여름,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새 교구청에서 지난 6월 3일, “제12회 교구 성경잔치” 준비를 위해 각 본당의 교육분과위원들이 함께하는 연수회가 있었다.

제12회 성경잔치 내용은 “공관 복음서”이며(11월 19일 주일), 중심 성경구절은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6)이다. 무릇 잔치는 초대이다. 성경사목부는 이 잔치 준비로 먼저 교육분과위원들에게 전체 내용을 숙지하도록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따라나서기 위한 은총의 시간으로 연결되도록 온 마음으로 1년간 준비한다.



열의가 가득 했던 2022년 제11회 성경잔치가 현재 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에서의 마지막 잔치라면, 제12회 성경잔치는 새 교구청에서 처음 개최될 잔치인 것이다.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와 치러질 이 성경잔치에 성경사목부에서는 외적으로 넓은 야외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내부의 공간도 요모조모 충분히 활용하여 부족함 없는 기쁜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데 기도와 함께하고 있다.

진행 예정 프로그램은 성경 경시대회(공관복음서와 예상문제집을 공부하여 본당에서 예선을 거친 분들이 참가하는 테스트), 성경 암송대회(본당별 10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교구에서 배부한 ‘성경 암송구절’ 외우기), 공관 복음서와 관련된 작품 전시회(그림, 도자기, 꽃꽂이, 붓글씨, 사진 등), 신·구약성경 필사노트와 은총성경쓰기 노트 전시(본당에서 1점씩 제출하여 신자 대비 최다 참여 3개 본당에 교구장 ‘본당 축복장’ 수여), 성경 말씀 체험 코너와 먹거리 장터가 열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각 본당에서도 성경잔치에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당의 사목자들의 열의와 신자들이 하나 되어 살아있는 신앙공동체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6월 12일과 13일에 성경사목부에서 주관하는 교구 성경특강에 거제·진주지구(칠암동성당)와 창원·마산지구(명서동성당) 두 차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선 수녀(광주가톨릭대 교수)의 “시편” 강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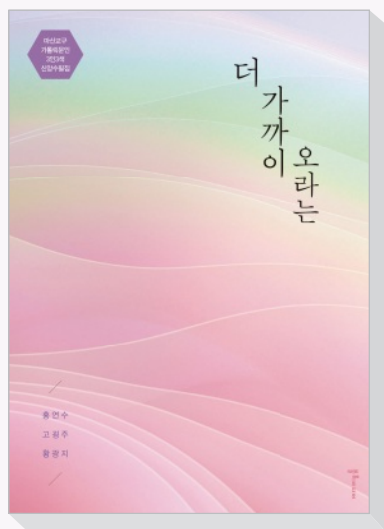
시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시편 22의 구체적인 주석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께 올렸던 탄원과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지금 나의 자리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시간이었다.

여러 기회들을 통해 우리 교구 신자들이 말씀이 등불이 되고, 걷는 길에 빛이 되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업, 나의 수필

홍연수 마리아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어릴 때 지렁이를 보다 호기심에 살짝 손가락을 대봤다. 보드랍고 따뜻한 느낌이 손끝에 닿았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여운이 깊게 남았다. 성인이 되어 바빠 살던 어느 날 지친 일상을 떠나 며칠간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침묵 피정에 들어갔다. 고요 속에 머물며 많은 것을 돌아보니 영혼도 맑아졌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오랜만에 운동장을 걸었다. 그때 눈앞에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손가락을 살짝 대보니 단단한 메마름이 훅 밀려왔다. 이때 묵상이 내 일상을 많이 바꿨다. 나는 봐야 믿고 겪어야 아는 어리석음에 신앙이 늘 부족했다. 그래도 참된 행복과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버릴 수 없었다. 채워지지 않던 갈증을 쫓아 반복되던 불안이 나의 묵상이며 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더딘 걸음으로 살다 때론 가쁜 숨도 몰아쉬었다.

분만실에서 조산사로 근무할 때 나는 생명의 신비를 깊이 체험했다. 한 탄생을 보며 놀라운 은총으로 내 삶은 크게 바뀌었다. 그리고 지역사회봉사를 통해 오류에 흔들리던 청소년들을 만났다. 그 영혼들이 진리 앞에서 반짝이던 눈빛은 잊을 수 없다. 혼란이 상처와 아픔이 되어 빛을 잃어간다. 애타는 성심을 알기에 난 기도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시편 8,5)

나는 수필 <참 소중하셔요>에서 존재의 소중함을 썼다. “그래서 나도 입술을 가만히 움직여 소리 내서 조심스럽고 나지막하게 내게 들려주었다. ‘넌 소중하단다.’ ‘넌~ 참 소중하단다.’ ‘넌 참 소중해.’ 꿈결처럼 따스한 음성으로 내게 반복해서 말해주었다. 그때, 내 존재를 알고 보내주신 분이 문득 떠올랐다.”

또 수필 <두려움>에서는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길을 썼다. “마음 편히 말을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건 사소하지만 즐거운 일상이다. 그러나 소통이 어려운 이들도 많다. 나도 대화의 일상을 찾기까진 참 오래 걸렸다. 낯선 환경에 긴장되어 신경은 곤두섰다. 먼저 말을 하려니 목이 잠겨 입술을 자꾸 깨물었다.”

이런 글들을 쓰면서 조금씩 나를 깨고 더 가까이 사람에게로 주님에게로 다가가는 작업을 할 기회를 얻었다. 3인3색신앙수필집은 교구 가톨릭문인회에서 5년간 기획하여 발간한 책이다. 나는 마지막 해인 작년에 『더 가까이 오라는』 신앙수필집에 참여하여 열세 편의 수필을 신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일을 준비만 하고 무력해질 때 성모님께 큰 힘을 얻었다. 놀랍게도 자립 장애인 모임을 통해 지금은 또 다른 희망이 생겼다. 세상에 힘들게 태어난 선천적 장애인들의 맑고 순수한 모습은 하느님의 또 다른 시선인 것 같다. 생명은 저마다 다른 의미로 함께 살며 존재한다.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을 찬미하는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참된 신앙 속에 살길 바라신 뜻을 조금씩 알게 됐다. 이제 모든 일을 성모님께 매 순간 봉헌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께 다가서는 기쁨이 더 크다는 신념도 드디어 생겼다.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8

공소 순례 소감문

이정화 글라라(지세포본당)

월요일이 휴일인 우리는 거제 ‘언제까지나’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 사무장들입니다. 2022년 여름 진주지구 26개 공소를 2박 3일 휴가를 받아, 순례했습니다. 골짜, 골짜 공소를 찾아다니며, 함께 기도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추억도 쌓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몇 바퀴를 돌고 돌아 찾아갔던 공소에는 신앙 선조들의 고귀한 넋이 서려 있음을 하느님 사랑에 대한 절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을 가까이하기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지 감사하면서 올해 다시 공소 순례를 시작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하늘은 맑고 푸르르고 향기를 가득 품은 장미꽃들이 집집 담벼락에, 마당에 피어 예쁨을 뽐내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계절에 하느님을 찾아 순례의 길에 오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창원 성심원공소를 시작으로 대산공소, 장방공소, 웅천공소를 찾아 그곳마다 깃든 이야기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들의 삶을 닮아가도록 이 순례가 나의 마음을 승화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을 함께 봉헌하기 위해 공소에 모였던 교우들, 어떤 곳은 얼마나 걸어야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를... 차로도 가기가 힘든 곳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모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나누며 살았던, 하느님을 모시고 싶은 열망으로 모였던 공소의 교우들.

교구장 서리 신부님의 격려사에 박해시대를 거치면서도, 신부님이 상주하지 않아도 어른 교우들이 기도하며 주일을 지켰고, 젊은 교우들을 믿음으로 이끌며 공소를 지켰다는 103위 한국 성인과 124위 순교복자 중에 공소 생활을 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처럼 공소는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고향 같았습니다. 조그만하고 아담한 공소에 들어설 때면, 무언가 그리운 옛고향에 온 듯 푸근해짐을 그리고 마음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대산공소에 계신 성모님은 유난히 우리 모습을 하신 것 같아 더욱 눈길이 가고 동글동글한 얼굴에 주변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서 계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셀카도 찍고 성모님, 성모님 하고 불러 보면서 이 공소가 잘 지켜져 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장방공소를 순례하고 나오면서는 길을 잘못 알려 준다는 이유로 네비게이션에게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도 웃었습니다. 웅천공소에 도착하였으나, 대문을 열지 못해 한참 헤메기도 했습니다. 웅천공소는 진해의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마을이 어찌나 예쁜지, 겨우 열어 들어간 마당에는 상추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 주부들인 우리는 눈이 약간 돌기도 했습니다.

웅천공소는 나가사키에서 사목하던 예수회 소속 세스페데스 신부님이 1593년 웅천에 도착해 1년 6개월을 지내며 웅천을 거점으로 부산, 동래, 기장 등지에 있는 왜군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행하고, 조선인 전쟁고아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곳 웅천은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지울 수 없는 하느님의 흔적이 서려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창원지구 4곳의 공소를 순례하면서 박해의 상황 속,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은총 속에서 믿음, 희망, 사랑을 잃지 않고 늘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거룩함을 닮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더욱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야겠지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또 순례가 이어져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구/본당

전국 사목국장회의

일시: 7월 19일(수)~20일(목) 1박 2일
장소: CBCK

전국 성소국장회의

일시: 7월 21일(금)/ 장소: CBCK

연구 2년 영신수련 30일 피정

일시: 7월 17일(월)부터
장소: 순천 예수회 영성 센터

교구 성경교육 봉사자 집중교육

일시: 7월 18일(화)~20일(목) 3일간
장소: 교구청

장례지도사 5차 교육

일시: 7월 21일(금)~23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WYD)

일시: 7월 22일(토)~8월 9일(수)까지
장소: 포르투갈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7월 23일(주일) 10:30
장소: 상평동성당

교구 성경사목부 성경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7월 27일(목)까지(면담 후 봉사자 교육)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7월 기도모임

일시: 7월 17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슴자이(10:50)-반송(11:00)-
시티(11:06)-현대주유소(11:16)-
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218차 ME주말 안내

일시: 7월 21일(금) 19:00~23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도박문제로 힘드시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꽃동네 성소자를 위한 말씀피정 <말씀과 사랑>

일시: 7월 22일(토) 13:00~23일(주일) 16:00
장소: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참가비: 4만 원(1인실-1박 2일)
대상: 고등학교 3학년~35세 미만 젊은이
문의: 형제회 010-4468-5628/
자매회 010-4830-2820
▶사전 예약 접수 요망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피정

일시 및 장소: 중고등부- 8월 7일(월)~9일(수),
경남 산청 성심원
·일반부- 8월 11일(금)~13일(주일),
서울 안토니오 피정의 집/ 접수: 선착순 모집
문의: 010-6608-3217(성소 담당 신부)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

일시: 8월 12일(토)~13일(주일)-중1~고2

8월 19일(토)~20일(주일)-고3~일반인

장소: 대전 정림동 살레시오 수련관
접수: 7월 30일(주일)까지 마감
문의: 010-6221-3520

2024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양업고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성, 인성, 영성의 삼위일체 교육을 하는 Quality School입니다. 양업의 27기 가족을 모집합니다.
원서접수: 9월 4일(월)~22일(금)까지
▶“홈페이지->입학안내->전형요강” 확인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캄보디아 돈보스코학교 학생들을 위한 후원물품 모으기 안내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인류 가족의 사명으로 새겨진 형제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난한 아동들에게 후원물품 보내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간: 6월 23일(금)~7월 30일(주일)까지
후원물품: 피부연고제(후시딘, 세레스톤-지), 칫솔셋트(여행용), 생리대

접수: 각 본당 사무실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교구 평협 사무처장 010-3880-4675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7월 17일(월) 19:00	중앙동성당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양창우 요셉 신부(성공품반외방선교회)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추지도) 성지순례 모집
7.24(월)~26(수)/ 8.7(월)~9(수)
■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7.27(목)~30(주일) 원주-춘천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8.17(목)~20(주일) 대전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야키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에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그라츠 자매교구 '그라츠 싱아카데미 합창단 Singakademie Graz' 마산교구 방문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 '그라츠 싱아카데미 합창단' 40명이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마산교구를 방문하였다. 1995년 그라츠에서 청소년 합창단으로 설립된 '그라츠 싱아카데미 합창단'은 2022년까지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1등, 금메달 등 131번의 입상을 한 합창단이다. 올해 2023년 강릉세계합창대회(7월 3일~13일)에 참가하기 위해 내한한 '그라츠 싱아카데미 합창단'은 교구 그라츠자매교구위원회(위원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의 초청으로 마산교구를 방문하게 되었다.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숙박을 한 합창단원들은 7월 8일 토요일 오전, 성지여자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강당에서 멋진 공연을 가졌다. 먼저 성지여고에서 준비한 사물놀이, 수화, 댄스 공연에 이어 그라츠 싱아카데미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공연을 마친 성지여고 학생들과 합창단은 오후 일정으로 서로 짝을 이루어 '마산향교'를 방문하여 가야금 및 해금 연주와 전통 놀이로 화합을 이루며, 한복을 입는 등 한국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저녁 공연은 용원성당(주임: 차광호 파스칼 신부)의 초청으로 미사와 함께 성모상 앞 야외무대에서 4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연이 이루어졌다. '도나우왈츠로 시작된 무대는 '힘들리셔 요들송'으로 이어졌으며, 용원성당 프니엘 성가단의 '고향의 봄' 합창과 그라츠 싱아카데미 합창단의 '아리랑'이 공연될 때는 힘찬 박수와 앵콜을 외치는 신자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오스트리아 그라츠 자매교구 '그라츠 싱아카데미 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교구 신학생 방학인사



찬미 예수님! 저희 신학생들은 2023학년도 1학기를 마치고 6월 중순 여름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사히 한 학기를 지낼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형제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계연수(6월 25일~27일)에서 저희는 신앙 선조들의 삶과 교구의 역사를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산청군 소재의 아름다운 공소들을 순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장마와 더불어 7월 무더위가 극성입니다. 한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신학생들은 마산교구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며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박명제 대건 안드레이(고성본당)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사목센터장

이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공단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기계처럼 일하거나 농지와 양식장 등에서 단순 육체노동을 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집합명사에 자신의 이름이 가리어진 이분들 중에는 자국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했던 프로페셔널도 많다.

의료인(의사, 간호사), 금융업계 전문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들도 있다.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던, 현재는 대한민국 공장에서 “야!” “새끼야!”라고 불리는 이름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요즘 나의 사목 중에 하나는 집합명사인 ‘외국인 노동자’로서가 아닌, 전인격적 존재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한 분 한 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김춘수 시인이 노래하듯 말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미사 후나 가정 방문 중에, 이름이 감추어진 꽃들의 뿌리를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한국에 오기 전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과거를 묻는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은 듯, 과거의 ‘나’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 그렇게 과거의 본인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현재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에 이른다. 그리고는 단절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한숨을 뿜어내며 멋쩍어한다.

어떤 한 여인은 본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여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나름 세련된 도시 여성으로 살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한국에 건너올 때, 한국의 로맨틱 드라마에서처럼 세련되고 화려한 한국의 커리어 우먼을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시골마을로 시집오게 된 20대의 꿈 많았던 여인은 시댁의 농사일에 투입되어, 피부는 어느새 검게 그을리고 그동안 애써 가꾸어 오던 하얀색 우유 빛깔 피부는 포기해야 했다. 술한 잔을 이불속에서 신세 한탄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단다. 운전석에 앉아보지 못했던 도심의 수줍고 가련한 20대의 여인은 8년 동안 무면허로 트랙터까지 몰며 농사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씩씩한 한국 시골의 아낙네가 되어있었다. K-드라마의 세련된 주인공을 꿈꾸다 전원일기 속의 조연이 되었던 것이다.

주변의 영어학원의 선생님이로 살 기회가 있었지만, 시댁 어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 집과 밭만을 오가며 그렇게 청춘을 다 보냈던 것이다. 급기야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 의사소통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시골을 벗어나 자녀들과 함께 도시에서 영어선생님으로 한국에서의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년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트랙터를 몰고, 살림을 살고, 육아를 하고 이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한다고 한국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이 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름 모를 이방인으로서 있다.

상실된 이름 뒤에는 개인의 경력단절뿐 아니라 가족과의 단절, 문화와의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함께 있다.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들에 서있는 꽃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밝은 빛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하고 싶다. 죄지은 아담에게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하느님이시지 않은가! 죄인도 아니지만, 오늘도 감추어져 있는 꽃들의 향기를 맡으러 길을 나선다. “어디에 있나요? 밝고 평화로운 하느님 나라로 함께 걸어갑시다!”